

## 연구원 소식·동정

### ☞ (사)한국화재감식학회 학술대회 금상 수상

- 수 상 자 : 화학물질센터 이근원 연구위원, 이수희 연구원
- 수상분야 : 학술논문
- 발표제목 : 목재부유분진의 분진폭발 위험성평가



### ☞ KDI 국제정책대학원 수탁연구 계약 체결

- 연구과제명 : 산업재해예방 제도구축 및 운영
- 연구기간 : 2012.9.1~2012.12.31
- 연구분야 : 연구원 정책연구팀장, 심사인증실 공정안전팀장 및 용인대학교 정치언 교수 등 6명

### ☞ 「필리핀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초청 연수

- 초청대상 : 필리핀 노동고용부 소속 정책실무자 10명
- 연수기간 : 2012.10.15~2012.10.19
- 연수내용 :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 및 우수사업장 방문 등 현장학습 실시

### ☞ 국외 공동연구 파견 복귀

- 파 견 자 : 화학물질센터 정용현 연구위원
- 연구기관 : 미국 국립독성연구소
- 파견기간 : 2011.8.15~2012.8.14
- 연구분야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연구

### ☞ 국외 공동연구 파견

- 파 견 자 : 직업환경연구실 정은교 연구위원
- 연구기관 : 미네소타주립대학
- 파견기간 : 2012.8.27~2013.8.26
- 연구분야 : 나노물질의 노출특성 및 노출평가

### ☞ 안전인증센터 CS(Customer Satisfaction)-Star상 시상

- 수 상 자 : 남한섭 차장(7월), 조영배 과장(8월)
- 선정사유 : 양질의 기술서비스 및 신속한 민원해결로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



남한섭 차장



조영배 과장

## 국제회의 참가기

### 제4차 아시아 산업안전보건 연구기관 회의를 다녀와서

정책연구팀장 이경용



제4차 아시아 산업안전보건 연구기관 회의가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에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9개국의 국립(또는 공공) 산업안전 보건연구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아시아 산업안전보건 연구기관 회의는 그동안 정례적으로 일본(1차, 2006년), 우리나라(2차, 2008년), 중국(3차, 2010년)등의 순서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아시아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미래와 도전'으로 첫날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연구기관 대표가 발표를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박정선 연구원장이 "아시아 산업안전보건연구의 미래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하였다. 이튿날에는 각 나라 연구기관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핵심 주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재난 복구 과정에서의 안전과 기후변화와 산업재해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경용 정책연구팀장과 정광재 과장이 산업 구조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로서 고령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에서는 감시체계의 활성화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회의를 통해 각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다르고, 연구 인프라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현안 문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 문제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높은 발표수준과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향후 이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개별국가의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을 아시아 지역의 근로자 나아가 전 세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심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단은 세계보건기구의 산업안전보건 협력기관들의 모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 연구원 또한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뉴스레터 | 2012. 10. No. 3 |

OSHRI Newsletter / No.3 October 2012



### 연구원장 메시지

GO

## 이제 SH@W에 실린 논문을 PubMed/PubMed Central(PMC)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Pubmed/PMC란 보건의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 색인 매체로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 운영하는 색인시스템이다. 검색에서 원문제공에 이르기 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세계 최대의 검색망으로 보건의학계통의 전 세계 학자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검색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두들을 맞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제전문학술지 SH@W가 마침내 Pubmed/PMC 등재 학술지가 되었다는 것은 SH@W에 실린 논문의 가시성(visibility)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논문 투고자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을 읽어 주고 연구결과를 인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SH@W의 장점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국내외 학자들 60여명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 안전보건경영·산업역학 및 산업의학·산업안전·산업위생·산업독성·산업간호·인간공학·직무스트레스·위험소통 등 산업안전보건분야를 망라하는 산업안전보건 종합과학학술지라는 점이다. 이제 SH@W가 Pubmed/PMC에 등재되어 SH@W에 실린 논문들을 전 세계 독자들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여러 중요한 역할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학술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한다.

※ SH@W에 실린 논문은 SH@W홈페이지 (www.e-shaw.org)에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정선

# 안전보건 단신

## 제3차 근로환경조사 통계청 웹서비스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9월17일(월)부터 「2011년도 제3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통계청 웹서비스(KOSI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근로환경조사」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15세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지난 2006년 1차를 시작으로 이번이 세번째로 전국 5만 가구에 대하여 약 6개월에 걸쳐 전문 조사원의 가구방문면접을 통해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현황, 종사상지위, 작업시간, 근무패턴, 작업속도, 작업특징, 사회심리적요인, 교육훈련 등이다. 근로환경조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초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다양한 국가통계와 연계분석이 가능한 자료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8.2%, 여성 41.8%로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79.2%, 임시근로자 14.3%, 일용근로자 6.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15~19세 0.9%, 20~29세 14.8%, 30~39세 23.6%, 40~49세 27.3%, 50~59세 21.0%, 60세이상 12.5%로 30대부터 50대가 약 72%를 차지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공단의 미션수행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외부전문가의 심층 분석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홈페이지를 금년내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환경조사결과는 통계청 웹서비스 (www.kosis.kr)에서 볼 수 있다.



[ 통계청 웹서비스 근로환경조사 검색 화면 ]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7월 24일(화)에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8월 10일(금)에는 역학조사평가 운영분과위원회 및 작업환경평가분과위원회를, 8월 30(목)에는 업무관련성평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에 개최된 제1회 역학조사평가 운영분과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의 난소암 등 10건의 역학조사계획을 심의하였고, 같은 날 오후 작업환경평가분과위원회에서는 자동차제조업 근로자의 임파중 등 6건을 심의하였다. 8월 30일(목)에 개최된 업무관련성평가분과위원회에서는 자동차제조업 근로자의 비호지킨 림프종 등 7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였다.

금년 6월 7일에 개정된 역학조사평가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운영분과, 작업환경평가분과, 업무관련성평가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 위원은 직업환경의학 및 산업위생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학조사평가 운영분과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작업환경평가분과위원회는 작업환경중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정도 등에 대한 산업위생학적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또한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관련성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업무관련성평가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 「안전보건 정책포럼」 개최 - 연속재해 발생원인 분석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9월 21일(금)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연속재해 발생사업장 원인분석 및 효과적인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자 「연속재해 발생원인 분석」이란 주제로 안전보건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관동대학교 강신수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국장 및 원진녹색병원 윤간우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포럼을 통해 지난 10년간 전체 산업재해의 8.3%에 해당되는 연속재해발생사업장의 재해에 대하여 직·간접 원인을 분석·토론하였고, 연속재해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보건 현안 해결과 잠재 이슈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안전보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경영정책포럼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포럼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안전보건연구-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 안전보건 단신

##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세미나 발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권혁면 안전연구실장은 9월 14일(금) 한국교통대학교 방재기술연구소 및 한국안전학회 리스크관리분과에서 공동 개최한 「2012 방재기술연구소 세미나」

에서 “IEC 61508(SIL) 적용을 통한 공장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용어에 대한 재고”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권혁면 안전연구실장 및 김진현 연구위원은 학계, 방재 및 위험관리 관련분야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의 안전향상을 위한 안전무결수준(Safety Integrity Level)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공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리스크 용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 연구원 국제활동

## 제9차 국제산업위생학회(IOHA) 참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나루 연구위원 및 서희경 과장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산업위생학회에 참석하였다. 국제산업위생학회는 금년 25주년을 맞아 “Growing the Seeds of Occupational Hygiene” 이란 주제로 각국의 산업위생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이나루 위원과 서희경 과장은 각각 연구수행결과를 바탕으로 “Ultrafine particles in tire manufacturing”과 “Characteristic of exposure hazards in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라는 주제로 국내 제조·건설업의 산업위생 이슈에 대해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금번 학회는 직업환경연구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향후 산업위생분야 발전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선진외국과의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 사업」 제1차 기술자문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12.9.11일부터 9.14일까지 4일간 제1차 기술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제1차 기술자문은 사전 준비회의 및 공동 세미나에서 도출된 필리핀 노동고용부의 기술자문 수요에 따라, 기술자문 프로그램과 세부 자문내용 등을 구성하여 필리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공단의 안전, 보건, 건설, 연구분야 전문가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은 필리핀 노동고용부 소속 감독관 37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 소개와 분야별 전문교육, 현지 사업장 방문 및 기술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다. 기술자문에 참석한 필리핀 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제재조치 등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공단 자문단과 동행한 현지 사업장(4개소) 기술자문에서 전기설비 접지, 가설작업대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 사업은 금년 말까지 6개월 동안,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양국 전문가 세미나와 세 차례에 걸친 기술자문 등으로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 국외 안전인증 MOU 체결기관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9월 5일(수) 안전인증센터 회의실에서 산업용 기계류에 대하여 인증업무 MOU(상호인정업무협력협정)를 체결한 체코의 인증기관 에스지유(SZU)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전인증센터 소장, 인증담당 실무자 및 SZU코리아 이사 등 6명이 참석하여, 공단과 에스지유(SZU) 간 MOU 체결(7월 27일)에 따른 상호협력 및 안전인증 관련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실시하였다. 에스지유(SZU)와의 상호 인정업무협력협정으로 국내 업체가 산업용 기계류를 동유럽 지역에 수출시 공단의 인증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증 취득 비용 절감 및 취득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